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

모윤수 · 김지현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

모윤수* · 김지현**

초 록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의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를 검증하고 더불어 남성이 나타내는 여성성 수준에 따라 이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집단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년남성(만40세-60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수집된 304개의 데이터를 SPSS와 AMOS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결과,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중년기에 정서적 위기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년남성이 가지고 있는 친밀감 두려움은 이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여성성의 수준에 의한 집단 간 비교결과에서는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 그리고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친밀감 두려움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성성 수준에 의한 두 집단 비교 결과에서는 남성안의 여성성의 강화만으로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이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에 변화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면, 남성의 중년기의 심리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의 수준을 낮추고 친밀감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여성성의 강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서 관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성역할 유연성과 친밀감 두려움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개입에의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중년남성,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 중년기 위기감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steeringboat@naver.com)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mongsanga@hongik.ac.kr)

I. 서론

성역할(gender role)이란 성(gender)의 특성으로 규정된 사회 구성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규범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Osmond & Martin, 1975). 개인은 성역할을 내면화하는 필연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성역할은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고, 자라는 동안 학습되며, 일생에 걸쳐 내면화된다. 일부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개인 안의 견고한 인성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바탕으로 한 특성을 발달시키고 자신을 규정한다. 그런데 이런 성역할의 내면화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Helgeson, 2012). 오닐(O'Neil, J. M., 1986)은 사회화의 결과로 내면화한 성역할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상태를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이라고 정의하였다.

오늘은 특히 성역할이 남성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였다. 남성에게 있어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은 여성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자신의 성에 기대되는 방식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 경멸과 조롱 등 부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피드백을 받은 남성은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독감과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게 된다(Corbett, 2009). 이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자신의 타고난 성에 맞는 역할을 내면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남성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억압된 여성성과 지나치게 강요된 남성성은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자신 내면의 여성성에 관련한 모순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전반적으로 성역할 갈등은 남성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O'Neil, 1981, 2008).

오닐(1986)의 이론적 개념화 이래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은 남성의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들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O'Neil, 2008).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성역할 갈등과 부정적 정서와의 정적관계가 보고되었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 김지현, 최희철, 2007 ; 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인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역할 갈등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남성들이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심각하게 경험될 수 있다.

중년기는 그 특성 상 다른 시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위기상황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년기에 이른 개인이 발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라고 한다(Gould, 1978; Jaques, 1965; Jung, 1954; Levinson, 1978). 특히 주변의 관계나 내면을 돌볼 겨를 없이 사회적인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던 남성들은 중년기에 진입하면서 내적으로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 외로움,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Levinson, 1978). 여기에 더하여 남성의 성역할갈등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들(예, 관계성, 표현성)을 소홀히 하게 하여 중년기 남성들의 정서적 위기 경험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중년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복합적으로 남성들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성역할 갈등은 남성의 중년기 위기에 상당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김애순과 윤진(1991)은 중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이런 특징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으로 구분하였다(김애순, 윤진, 1991).

중년기에 성역할 갈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은 비단 남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정혜, 김지현(2012)에 따르면, 한국의 중년여성의 성역할 갈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년기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한 대처방식을 가지기 어렵게 하고 삶의 의미 발견, 심리적인 안녕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년여성들의 성역할 갈등은 ‘양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타인을 우선 돌봄’,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주장억제’로 구분된다. 반면에 한국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성취, 권력, 경쟁추구’, ‘감정표현억제’, ‘일 가정 양립 갈등’,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남성우월’과 ‘가장의무감’ 영역으로 구분된다(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중년기의 삶과 정서적 경험에 주는 부정적

인 영향력은 유사하지만, 정서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적인 측면은 다름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역할 갈등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특히 성역할 갈등이 중년 남성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여성과는 달리 성역할 갈등과 관련하여 조력을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남성 성역할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남자답지 않은 것이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메시지의 압력을 받는다. 따라서 남성들은 중년기라는 발달단계 특성과 성역할 갈등이 주는 영향으로 더욱 가중되는 공허함, 외로움,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 자체가 주는 어려움에다가 남성성역할의 영향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되는 정서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은 직접적인 형태로 표현되거나 적극적 도움추구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극단적인 형태(예, 자살)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동아일보, 2014).

중년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위기감은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중년남성의 정서적 위기는 남성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안녕과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 남성의 삶 전반에 걸친 성역할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년기에 들어서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은 중년남성의 정신건강과 복지뿐만이 아니라 여성 배우자 및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위기에 대한 실천적 개입방법에 있어서 관계를 통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이며(Ryan & Deci, 2000), 살아가는 힘과 지지를 얻는 원천이 된다. 개인이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능력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친밀감은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Miller & Lefcourt, 1982). 개인이 겪는 삶의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짐은 적응력을 높여주어 육체적, 심리적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Levine, 1991; Prager, 1995, 1999).

개인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남성의 중년기에는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중년기는 그 특성상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 시기의 여성에게는 성장한 자녀와 친구 등 지지를 얻는 대상이 다양한 반면, 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가 정서적인 지지의 유일한 출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김명자, 1998). 따라서 중년 남성에게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친밀한 관계를 통한 지지로 중년남성의 정서적 위기극복의 접근점을 모색해보고자 할 때, 관계맺음과 관련된 심리내적인 변인 중 하나인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fear of intimac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밀감 두려움이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의 사적인 정보나 깊은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교환하는 능력을 억제하는 속성이다(Descutner & Thelen, 1991). 친밀감 두려움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개인이 친밀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 경험의 결핍과 부정적인 정신건강 수준과의 밀접한 관계가 보고되었다(Levine, 1991; Prager, 1995, 1999).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성역할 갈등은 심리내적인 영역에서는 우울, 불안 등 남성들이 겪는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관계를 가지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기개방과 친밀감 경험에 부적관계를 보인다(O’Neil, 2008). 그리고 친밀감 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남성은 친밀한 관계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남성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Descutner & Thelen, 1991). 논의된 변인들 간의 관계는 친밀감 두려움이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의 정서적인 위기감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성역할 갈등이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으로 가는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요인으로서 기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예측변인인 성역할 갈등이 매개변인인 친밀감 두려움을 통해 준거변인인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심리분야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매개변인을 통해 발생하고 다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여 매개변인에 초점을 맞춘 상담 전략 수립을 위함이다. 이런 매개변인을 통한 개입은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서영석, 2010). 따라서 친밀감 두려움이 성역할 갈등과 정서적 위기감 사이의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된다면, 친밀감 두려움은 성역할 갈등에 따른 중년기 정서적 위기의 해결을 위한 실천 개입에 활용될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성역할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O'Neil, 1981),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scutner, & Thelen, 1991). 이 때문에 친밀감 두려움이 성역할 갈등의 내용 혹은 이와 연관이 있는 유사한 변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성역할 갈등은 사회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형성된 개인 특성변인으로 전반적인 조건 하에서의 부정적 결과의 경험인 반면에, 친밀감 두려움은 순수하게 친밀한 관계 맥락에서의 관계형성 두려움만으로 개념화되었다. 데스쿠트너와 텔렌(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은 친밀감 두려움의 개념화 과정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두려움(fear)과 친밀감 회피(avoid intimacy)성향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심리내적인 변인인 친밀감 두려움은 비교적 변화가 어려운 성역할 갈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용이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에의 두려움은 성역할갈등과 관련된 감정표현 억제나 그로인한 관계에서의 불편함보다는 개인의 관계맺음 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고, 이에 대해 좀 더 근접하게(proximal) 접근가능한 개입지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에 더하여, 중년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위기와 관련하여 여성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융(Jung, C. J., 1954)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통합을 통한 개별화(individuation)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남성성(masculinity)이란 도구적, 수단적 역할, 과업 중심,

합리적인 사고, 과업의 수행 등으로, 여성성(femininity)은 표현적, 애정적 역할, 정서적 공감, 부드러움, 온화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Levinson, 1978). 대부분의 남성들은 남성으로서의 정체감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성성으로 여겨지는 자아의 어떤 부분을 도외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성 자신만의 여성성이 계속적으로 무의식에 억눌리게 되고 남성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중년기에 이르게 되면서 남성들은 심각한 심리내적인 위기감을 경험할 수 있다(Levinson, 1986). 또한 남성 자신의 여성성 억압은 타인에게 자신의 깊은 정서와 감정을 기꺼이 개방하고 그 결과 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을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극복하고자 할 때, 남성이 지닌 여성성은 친밀감 두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이 지닌 여성성은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이는 중년기의 정서적 위기감을 경감시켜, 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중년기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과의 통합이란 대인관계와 과업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경직된 구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김명자, 1998). 그렇다면 여성성을 발현하여 성공적인 통합을 이룬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있어서 성역할 갈등이 친밀감 두려움을 통해서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이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남성의 여성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한국 중년 남성만의 특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남성성역할 갈등 척도 개발 연구에 따르면, 한국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오늘날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남성들이 보인 ‘가장으로서의 의무감’ 요인은 서구의 남성 성역할 검사에서는 없었던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났다(이수연 외, 2011). 이는 한국 남성에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부장제도와 같은 남성 이데올로기는 한국 남성성역할의 내면화 및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리드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의무에 대한 압박감은 한국 남성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성취를 지나치게 추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과 관계의 돌봄을 소홀히 하여, 중년기에 심각한 정서적

위기에 놓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남성들이 남성성역할의 수행에 집착(adherence)하는 데에는 성역할 갈등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남성 성역할을 고수하는 데에서 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남성 성역할 중 도구성(instrumentality) 추구의 결과는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일시적인 관계성 충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계속 지나치게 고수하려고 할 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억압은 내면화된 남성성의 기능적 효과를 넘어 심리적인 부적응상태를 유발한다(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다수의 서구 연구에서 남성성역할 갈등이 관계 맺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O'Neil, 2008). 그러나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정서적인 어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수연 외(2012)의 연구에서 한국 남성 성역할 갈등의 하위 요인 중 '성취, 권력, 경쟁 추구', '감정표현억제', '일 가정 양립 갈등',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남성 우월'은 부정적 심리와 연관되지만, '가장 의무감'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는 다르게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과 스트레스는 낮추는 등 남성 심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이 남성으로 하여금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의해 심리적 어려움도 주지만, 가족의 삶을 지지하고 가족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높은 시기의 중년남성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남성성역할의 내면화가 낳은 결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간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지위(SES: Social Economic Status)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남성성역할 가운데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한국 중년남성에게 중요한 성역할 기대라고 한다면(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 경제적인 역할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은 남성의 자기 가치감을 지지하여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남성성역할의 내면화는 직업적 성취의 압박감을 만들어 내고 직업에서의 낮은 성취를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 그 결과, 권력과 성공에 다가가지 못하는 대다수 남성들은 자기평가 절하(devaluation)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이은아와 정혜정(2007)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이 자신의 경제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떨어져서 지금까지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성의 경제적 성취와 정서 간 관계에 대한 논의들은 다른 변인들과 중년남성의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관계를 탐색할 때 경제적 성취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년남성의 개인 소득의 성취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매이, 킬리와 틴글리(Imai, K., Keele, L., & Tingley, D., 2010)에 의해 제안된 인과매개모형에 의하면, 처치변수 및 매개변수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 존재할 경우, 사전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 제3의 변수로 인해서 효과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하여진, 박현정, 2015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성의 가장 큰 의무인 경제적인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의 한 척도를 남성 개인의 평균소득으로 보고,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 및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간 관계에서 개인소득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들은 성역할 갈등이 중년기의 발달과제인 자아의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중년남성으로 하여금 정서적 위기감을 경험하게 함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친밀감 두려움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여서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중년기에 정서적인 위기감을 겪을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그러나 중년남성이 지닌 여성성에 따라 친밀감 두려움의 발달 및 그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한편 남성의 경제적인 성취는 타인과의 관계 및 정서적 안녕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남성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의 평균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이 친밀감 두려움을 통해서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간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둘째, 남성의 여성성은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이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에 대해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년기라는 생애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인 변수들 가운데에서 가장 구분이 용이하면서도 중년기의 발달적인 특징을 잘 대표하는 요인인 연령으로 중년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중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빈슨(Levinson, D. J., 1978)의 구분을 채택하였다. 40세에서 60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는 이 연령 구분은 한국문화에서 7080세대로 일컬어지는 중년세대의 동질성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자료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구대상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적 접근이 용이한 서울에 거주하는 만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표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에 3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를 위해서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완료 후 수거된 336부의 설문지 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2부를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서 1차로 각 변인별 일변량 이상치(outlier)를 3SD(표준편차)기준으로 제거한 후, 2차로 세 변수 조합 이상치인 다변량 이상치(outlier)를 역시 3SD를 기준으로 제거한 후에 총 304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인 중년남성의 평균연령은 48.92세이다(범위:40-60, SD=5.78). 월평균소득의 분포는 150만원 미만인 6명(2.0%), 150만원-300만원 미만인 54명(17.8%), 300만원-500만원 미만인 113명(37.2%), 500만원-700만원 미만인 75명(24.7%), 700만원-900만원 미만인 30명(9.9%), 900만원 이상이

26명(8.6%) 이었다. 혼인상태의 분포로는 미혼이 12명(3.9%), 결혼 288명(94.7%), 이혼 3명(1.0%), 별거 1명(0.3%)이었다.

2. 측정도구

1) 성역할 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 축약형(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 12문항을 사용해서 한국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오닐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GRCS (Gender Role Conflict Scale,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를 바탕으로 하여 이수연 등(2011)이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의 축약형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이 척도를 개발한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80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2이다.

2) 친밀감 두려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데스쿠트너와 텔렌(1991)이 제작한 친밀감 두려움 척도(Fear-of-Intimacy Scale)를 이인숙(2002)이 번안하고 한선영(200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모든 긍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 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가까운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묻는 30개 문항(예, '내가 수치심을 느꼈던 일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과 과거 자신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5개 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한발 짝 뒤로 물러서곤 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밀감 두려움 척도는 데스쿠트너와 텔렌에 의해서 처음 제작될 당시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93이고, 한 달 간격으로 측정한 재검사의 신뢰도는 .89이다. 이인숙

(200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이고 한선영(200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89이다.

3) KSRI 여성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의 여성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진경(1990)이 벰(Bem, S. L., 1974)의 BSRI (Bem Sex Role Inventory)를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성역할 척도(KSRI) 중 여성성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나의 성격과 같지 않다(1점)’에서 ‘언제나 또는 거의 나의 성격과 같다(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성 성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3이다.

4)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척도

중년의 위기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김애순과 윤진(1991)이 코스타와 맥크레(Costa, P. T. Jr., & McCrae, R. R., 1978)가 개발한 중년기 위기감 척도(Mid-Life Crisis Scale)에 근거하여 한국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형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종 67문항으로 개정되어 정서적 위기감 22문항, 개별화 과정 14문항, 활력의 상실감 7문항, 직업 불만족 10문항, 결혼 불만족 10문항, 자녀관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96이며 각 하위 척도 별 신뢰도는 .74에서 .94 사이로 나타났다(김애순, 1993). 본 연구는 중년남성들이 중년기에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위기감 중에서 부정적 정서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이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위기감’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위기감은 중년기 위기감 전체 척도의 4가지 하위요인의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으며(Cronbach's α = .94), 본 연구에서 재고자 하는 준거인 부정적 정서성과 상관이 높게 나온 하위요인이다. 그러므로 정서적 위기감 척도만을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가 중점을 두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정적 정서성을 재는데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요인의 신뢰도는 .95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비분석과 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분석으로는, 수집한 자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기술통계)을,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척도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척도와 왜도를 통하여 구조모형검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으로는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the tes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성 수준에 의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을 여성성수준으로 상위 101(약 33.3%) 하위 101(약 33.3%)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AMOS를 이용한 다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예비분석

척도와 왜도를 통하여 구조모형검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성역할 갈등(왜도 = -.021, 첨도 = .211), 친밀감 두려움(왜도 = -.419, 첨도 = .384), 정서적 위기감(왜도 = .290, 첨도 = -.004)의 각 측정 변인은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기준에 의거하여(Groeneveld & Meeden, 1984) 정규성 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친밀감 두려움, 정서적 위기감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친밀감 두려움은 정서적 위기감과 정적 상관관을 나타내었다.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두려움,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1와 같다. 그리고 여성성 상 하위 집단 별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는 표2에 제시하였다.

〈표 1〉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상관계수

	M	SD	1	2	3	4
1.성역할 갈등	3.09	.50				
2.친밀감 두려움	2.69	.44	.33**			
3.정서적 위기감	2.58	.75	.47**	.38**		
4.여성성	4.57	.98	.06	-.16**	-.10	
5.평균소득	3.48	1.20	-.09	.02	-.13*	.09

N=304, *p<.05 **p<.01

〈표 2〉 여성성 상, 하위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여성성 상위						여성성 하위					
	M(SD)	1	2	3	4		M(SD)	1	2	3	4	
1	3.10(.54)						3.00(.51)					
2	2.62(.45)	.40**					2.76(.46)	.37**				
3	2.49(.78)	.44**	.36**				2.60(.73)	.46**	.50**			
4	5.60(.46)	-.05	-.14	-.14			3.47(.57)	-.06	-.15	-.16		
5	3.66(1.26)	-.08	.06	-.11	.03		3.41(1.22)	-.06	-.02	-.17	.01	

1. 성역할갈등, 2. 친밀감두려움, 3. 정서적위기감, 4. 여성성, 5. 평균소득

*p<.05 **p<.01 상위 N=101 (범위: 5.00-6.95), 하위 N=101 (범위: 1.35-4.20)

2. 구조방정식 모형

1) 변수의 구성

본 연구는 각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 (SEM analysis)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변인간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성역할 갈등 변인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에 의거하여 4 문항씩 3개의 묶음(parceling) 점수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변인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파슬링을 실시하고 각 측정변수의 문항 수(4-6문항)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4개의 묶음점수를 사용했다. 친밀감 두려움 변인은 현재 친밀감 두려움, 과거 친밀감 두려움의 2개의 요인점수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수들이 자료를 설명하기에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지수 즉, χ^2 ,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좋은 적합도($\chi^2 = 65.016$, $df=24$, $p<.001$, CFI=.978, TLI=.967, RMSEA=.075)를 나타냈으므로 본 연구의 구인이 측정변수에 의해서 타당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Hair et al., 2006). 측정변수들의 표준화계수는 .512에서 .941사이로 나타났고 모든 경로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성역할갈등 → 성역할갈등1	.75***	1.00		
성역할갈등 → 성역할갈등2	.77***	1.03	.10	10.45
성역할갈등 → 성역할갈등3	.64***	.91	.10	9.51
친밀감두려움 → 현재친밀감두려움	.51***	1.00		
친밀감두려움 → 과거친밀감두려움	.56***	1.71	.32	5.41
정서적위기감 → 정서적위기감1	.92***	1.00		
정서적위기감 → 정서적위기감2	.94***	1.04	.03	30.18
정서적위기감 → 정서적위기감3	.92***	.97	.03	28.11
정서적위기감 → 정서적위기감4	.94***	.97	.03	29.74

N=30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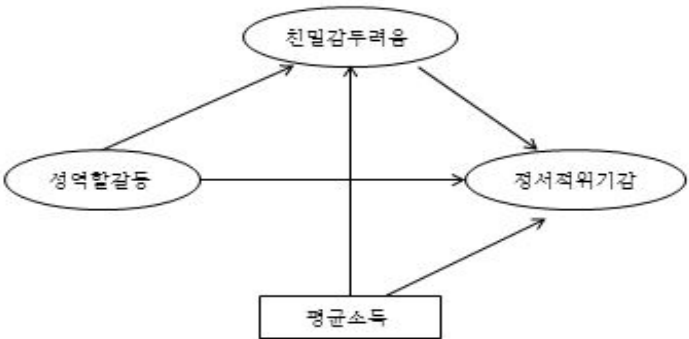
3) 연구모형의 수정

최종 모형 선정을 위해서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과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소득을 통제한 가설연구모형과 평균소득에서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수정모형1), 그리고 여기에 성역할 갈등에서 정서적 위기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수정모형2)의 모형비교를 실시하였다. 우선 세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고 세 가지 적합도 지수(CFI, TLI, RMSEA)를 가지고 모형 비교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형들이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연구모형과 평균소득에서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수정모형1)을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수정모형1이 연구모형과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수정 모형1과 성역할 갈등에서 정서적 위기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수정 모형2)의 모형비교를 실시한 결과, 두 모형적합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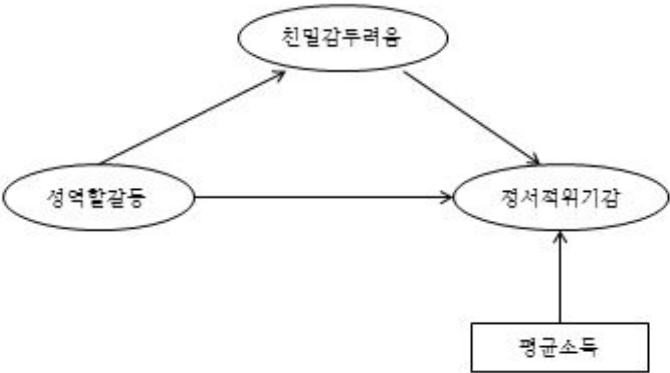
모형비교 결과를 종합해보면, 2차로 수정된 모형의 모형적합성이 처음에 설정한 가설연구모형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 최초 설정한 가설 모형과 이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1차 2차에 걸쳐서 제거한 모형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수정된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의거하여 보다 간명한 수정 모형2가 자료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각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비교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모형비교에 사용한 가설연구모형은 그림 1에 1차 수정 연구모형은 그림2에 2차 수정되어 최종 선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4〉 적합도 지수와 모형비교

	χ^2	df	$\Delta\chi^2$	CFI	TLI	RMSEA
연구모형	71.359	31		.978	.969	.066
수정 1	71.970	32	.611(p=.434)	.979	.970	.064
수정 2	73.304	33	1.334(p=.248)	.978	.971	.063



[그림 1] 가설연구모형



[그림 2] 1차 수정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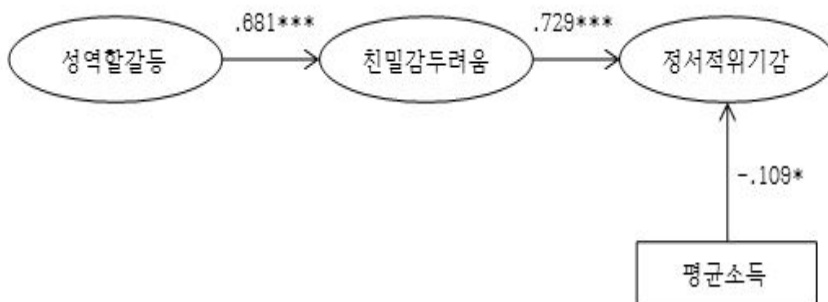


조절변인: 여성성

[그림 3] 2차 수정 연구모형 (최종연구모형)

3. 최종모형의 구조모형 연구

측정모형 검증 결과를 반영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고려해서 초기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성역할 갈등이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시킨 수정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그림3)으로 선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모형비교검증을 통해서 최종 선정한 모형의 적합도 평가결과는 χ^2 (df=33, N=304)=73.304 ($p<.001$), CFI=.978, TLI=.971, RMSEA=.063으로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최종연구모형을 가지고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 정서적 위기감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였다. 경로검증결과는 성역할 갈등은 친밀감 두려움($\beta = .681$, $p<.001$)에 그리고 친밀감 두려움은 정서적 위기감($\beta = .729$,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의 검증 결과는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친밀감 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친밀감 두려움이 높을수록 정서적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소득이 통제된 최종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4에 제시하였다.



N=304, *** $p<.001$, * $p<.05$

[그림4] 최종연구모형 경로계수

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의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간접효과와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

선 표집으로 생산된 1,000 개의 자료표본을 원자료(N=304)에서 추출하여 모수 추정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효과검증은 신뢰구간 95%로 설정하고 그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본다 (Shrout & Bolger, 2002).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성역할 갈등이 정서적 위기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최종연구 모형의 간접효과 값은 .496, $p < .001$ 이고 95% 신뢰구간에서 .379에서 .598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성역할 갈등이 정서적 위기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최종연구모형에서 평균소독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역할 갈등과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 친밀감 두려움이 완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매개 효과의 검증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접효과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
최종모형 성역할갈등	친밀감두려움	정서적위기감	.496***	.379-.598

N=304 , *** $p < .001$

5. 여성성 수준에 의한 다집단 분석

KSRI로 측정한 여성성 점수를 근거로 여성성 상위집단 101(약 33.3%)과 하위집단 101(약33.3%)으로 나누어서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이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경로계수비교를 위해서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 무제약 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Delta\chi^2 = 3.839$, $p = .698$)은 모형적합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과 경로 동일성 제약모형($\Delta\chi^2 = 3.074$, $p = .380$)도 모형적합도의 차이가 없다는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집단 비교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집단 간 비교 모형적합도와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

	χ^2	df	CFI	TLI	RMSEA
무제약 모형	116.033	66	.958	.943	.052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19.872	72	.960	.950	.049
경로동일성 제약모형	122.946	75	.960	.952	.048
				$\Delta\chi^2$	p
무제약 모형-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839 .698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경로동일성	제약모형			3.074 .380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남성의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이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역할 갈등이 정서적 위기감에 미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남성이 중년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중년기 남성의 정서적 위기감의 예방 및 이에 개입하는 효과적인 상담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제기 되었다. 첫째, 성역할 태도 변인인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인 변인인 친밀감 두려움이 중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작용하는 관계가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남성이 나타낸 여성성에 따라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이 중년기의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관계가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은 둘 다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역할 갈등은 직접적으로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친밀감 두려움을 매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친밀감 두려움은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중년남성의 경우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친밀감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중년기

에 정서적인 위기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성역할 갈등 관련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이라는 한국 남성성역할 고유의 특징 때문에 성역할 갈등상태 자체가 정서적 위기감에 주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분석한 자료의 결과만으로 이런 해석을 내리는 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남성들의 성역할 갈등이 관계적인 측면을 통해서 정서적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수연 등(2012)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남성에게 있어서 성역할 갈등은 경제적 임무의 성공적 수행에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작용하여 반드시 심리적인 역기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한국 문화 내에서 반드시 역기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데도 중년기에 정서적인 위기감을 경험하게 하게 되는 것은 성역할 갈등의 요인 중 관계에 작용하는 요인의 역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할 갈등 중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의해서 관계의 질이 안 좋아질 때 정서적인 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여성성 수준이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간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남성이 여성성을 충분히 발현한다면 관계를 잘 맺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덜 겪으며 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영위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중년남성에게 남성성의 내면화 정도가 높고, 이로 인한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 수준이 높다면, 여성성의 강화만으로 지나친 남성성 내면화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고 정서적 위기감을 줄이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성역할 갈등으로 인한 친밀감 두려움 극복을 위한 개입에 단순히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상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제3의 요인 존재를 탐색하는 것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 정서적 위기감 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개인 평균소득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경제적 성취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소득이 정서적 위기감과 크지 않은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영향을 통제한 이유는 정서적 위기감의 수준에 남성의 경제적 성취로 인한 자기 가치감과 관련된 정서의 반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의 경제적 의무가 강조되는 한국 남성성역할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경제적인 기능의 유지가 한국남성의 심리적 경험과 관계맺음에 작용하는 긍정적, 부정적인 기능 효과가 의미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이와 관련한 변인을 추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부족한 중년남성 대상 남성성 관련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남성 대상 연구는 여성 대상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더욱이 소수의 남성 성역할 갈등 연구들의 대부분은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 자료로 분석된 결과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중년남성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한 중년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남성성역할 갈등의 부정적 결과의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남성 스스로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남성의 남성성의 고수, 여성성 억압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 결과이다. 여기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단순한 남성과 여성의 성향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하고 사회 안의 개인에게 요구하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성역할 갈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은 남성의 심리내적인 문제 이면에 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있어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 내에서 남성의 우위적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역할수행에 대한 지나친 압박을 주게 되어서 남성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성역할 갈등은 지나친 성역할 내면화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 안에서 양성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양산하고 남성 우위적인 사회적 파워의 구도를 유지시키려는 남성 헤게모니

(hegemony)의 부정적인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은 남성 파워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집단이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일 수 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남성으로 하여금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 갈등이 관계적 측면을 통해서 중년남성의 정서적 위기에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중년기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친밀한 관계를 통한 지지로 예방 및 극복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남성이 친밀한 관계를 맺음은 중년기에 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 갈 수도 있는 정서적인 위기를 예방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중년의 위기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잘 맺은 관계에서 오는 힘과 지지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남성이 노년까지 이어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성 배우자와 가족의 전체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문제의 절반의 책임은 남성의 문제이고, 이것은 곧 나아가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 남성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남성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관계하는 여성 그리고 가족 전체의 삶의 만족감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들을 종합하여 중년남성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제안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정서적인 위기감과 관련해서 성역할 갈등과 친밀감 두려움 둘 다 중요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중년이후의 삶에서 성역할 유연성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중년기 정서적 위기를 예방 및 극복하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남성은 친밀감 두려움을 극복하여 관계를 잘 맺고, 사회의 경직된 성역할이 주는 심리적인 긴장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상담적 개입으로 성역할 갈등을 낮추어 주거나, 친밀감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는 두 방향으로의 접근이 모두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생애 초기부터 사회화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역할 갈등은 변화하기 쉽지 않은 견고한 인성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

으로 변화가 용이한 심리내적인 변인인 친밀감 두려움의 감소를 일차적인 목표로 두고, 중년남성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인지행동이나 경험적인 상담개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역할 갈등은 친밀감 두려움을 통해서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에 영향을 준다. 친밀감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성역할 갈등을 낮출 수 없다면, 친밀감 두려움의 감소를 통한 접근만으로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밀감 두려움을 낮추는 접근과 더불어 성역할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성으로 하여금 성역할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시키고,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경직된 성역할 태도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등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상담의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성역할 내면화의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인식개선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남성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계개선 상담개입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성들 스스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받는 남성성의 강요와 무의식적, 의식적인 여성성 억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양성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관계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남성이 경직된 남성성역할 고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양성 평등적 관점을 수용함에서 비롯될 수 있다. 또한 남성 스스로 양성 평등적 관점이 여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득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남성 헤게모니를 기꺼이 포기하려 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부부나 커플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남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인식변화를 촉구하고, 지나친 성역할에 의거한 행동을 포기하도록 격려하여, 양성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성역할 갈등이 중년기의 정서적 위기감에 이르는 많은 가능한 요인들 가운데에서 친밀감 두려움과 개인 소득수준만을 가지고 진행한 연구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에 더하여

성역할 갈등과 정서적 위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모형에 추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남성의 여성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친밀감 두려움 및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 간 관계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여성성 하위 집단의 자료가 여성성 수준이 낮은 자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여성성이 낮은 집단을 포함한 자료로 여성성 수준에 따른 비교를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중산층 남성을 많이 포함하는 자료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런 표집의 한계로 인해서 분석결과의 편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 지역 외의 다른 지역도 포함시키고 중산층 외에도 다양한 소득계층의 남성들을 좀 더 포함함으로써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성역할 갈등에 대한 변인들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수한(2010).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성역할 및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 위기의 시기 확인 및 발달과정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애순, 윤진(1991). “중년기 위기감 척도의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 73-87.
-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 25-41.
-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 연구, 6, 621-632.
- 김지현, 최희철(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145-160.
- 동아일보(2014.12.10). “중년남성 우울증 주의보, 베이비부머세대는 자살 위험군.”
- 백보령(1994).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 1147-1168.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201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검사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 5-33.
- 이은아, 정혜정(2007).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요인”. 한국가족학회지, 12, 301-329.

- 이인숙(200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 82-92.
- 최희철, 김지현, 김병석(2009).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 연구, 10, 1229-1243.
- 하여진, 박현정(2015). “인과매개모형을 활용한 영어 사교육 참여의 학업성취도 향상효과 분석: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평가연구, 28, 77-95.
- 하정혜, 김지현(2012). “한국 중년여성 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 연구, 13, 2987-3007.
- 한선영(2005). 부모애착과 이성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ddis, M. E.(2011). *Invisible Men*. New York: Times Books.
- Addis, M. E., & Mahalik, J. R.(2003). Men, masculinity, and the contexts of help seeking. *American Psychologist*, 58(1), 5-14.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55-162.
- Campbell, J. L., & Snow, B. M.(1992). Gender role conflic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men's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 84-87.
- Corbett, K.(2009). *Boyhoods: Rethinking Masculinity* (pp. 173-207).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osta, P. T. Jr., & McCrae, R. R.(1978). Objective personality assessment, In M. Storandt, I. C. Siegler, & M. F. Elias (Eds.), *The clinical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Plenum.
- Descutner, C. J., & Thelen M. H.(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of-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 218-225.
- Doi, S. C., & Thelen, M. H.(1993). The Fear-of-Intimacy Scale: Replication and Exten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5, 377-383.

- Garnets, L., & Pleck, J.(1979). Sex role identity, androgyny, and sex role transcendence : A sex role strain 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 270-283.
- Good, G., & Mintz, L. B.(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 risk.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17-21.
- Gould, R. L.(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 Groeneveld, R. A., & Meeden, G.(1984). Measuring Skewness and Kurtosis. *The Statistician*, 33(4), 391-399.
- Hair, J. E.,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rham. R. L.(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Helgeson, V. S.(2012). *The psychology of gender* (4th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 Imai, K., Keele, L., & Tingley, D.(2010). A general approach to causal med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5(4), 309-334.
- Jaques, E.(1965). Death and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502-514.
- Jung, C. G.(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Kim, J. H., Choi, J. C., Kim, H, S., & Park, K. S.(2009).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Adolescents. *Asia Pacific Edus. Rev*, 10, 215-223.
- Levine, S.(1991). Psychological intimac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7, 259-267.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L., & McKee, B.(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 Knopf.
- Levinson, D. J.(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 Miller, R. S., & Lefcourt, H. M.(1982). The assessment of social intim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5-14.

- O'Neil, J. M.(1981). Male sex-role conflicts, sexism, and masculinity: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Counseling Psychologist*, 9, 61-80.
- O'Neil, J. M.(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1986). Gender 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 Osmond, N. W. & Martin, P. Y.(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4), 744-757.
- Prager, K. J.(1995). *The Psychology of intimacy*. New York: Guilford Press.
- Prager, K. J.(1999). *The intimacy dilemma: A guide for couples therapists*. In J. Caelson & L. Sperry (Eds.), *The intimate couples*(pp. 109-157). New York: Brunner/ Mazel.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harpe, M. J., & Heppner, P. P.(1991). Gender role, gender-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23-330.
- Sharpe, M. J., Heppner, P. P., & Dixon, W. A.(1995). Gender role conflict, Instrumentality, expressiveness, and well-being in adult men. *Sex Roles*, 33, 1-18.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Abstract

**Gender Role Conflict and Emotional Mid-life
Crisis in Men :
The Mediating Role of Fear of Intimacy**

Yoon-Soo, Mo · Ji-Hyeon, Kim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emotional mid-life crisis in middle-aged Korean men. I hypothesized that the fear of intimacy mediated this relation. In addition, I supposed that the feminine trait in men could moderate the relation of gender role conflict, fear of intimacy and emotional mid-life crisis. These assumptions were tested on 304 samples from middle-aged Korean men(age : 40-60).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study 1 showed that, as expected, male gender role conflict was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al mid-life crisis. The fear of intimac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emotional mid-life crisis when controlling of income level. Gender role conflict had no direct effect on emotional mid-life crisis. In study 2, the test result of the multi group analysis indicated tha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 of gender role conflict, fear of intimacy and emotional mid-life crisis was not found.

Overall, the present results confirmed that gender role conflict affected the emotional mid-life crisis of middle-aged men. The fully mediated by the fear of intimacy model fit the data well when holding constant of income level. Also, this model explained that this relationship did not differ in two groups divided by the feminine scores. Thu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reasing the level of gender role conflict and alleviating the fear of intimacy are more important than enhancing the femininity in men for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e mid-lif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men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words : Gender-role conflict, Fear of intimacy, Mid-life crisis, middle-age man